

낙후된 골판지기계산업의 선진화 도모

김재경/한국골판지포장기계공업협회의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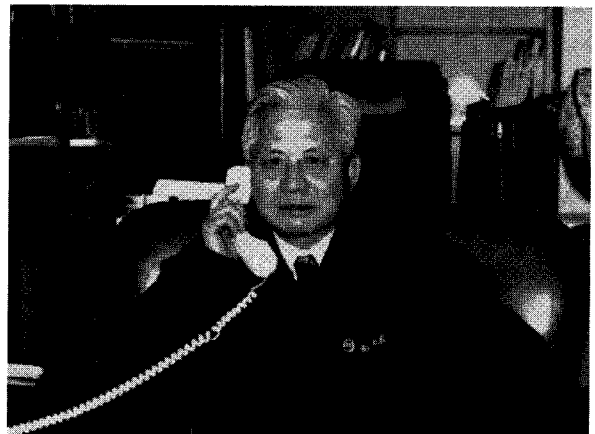
지난 93년도에 동국전문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과가 생겨 포장산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뒤 지난해에는 포장학회가 창립된 데 이어 포장기계협회가 발족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문제 해결은 물론 포장산업의 체계적 이론 정립, 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고른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지난 1월에는 골판지 포장기계 제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신생 간판을 내걸어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창립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주)일경기계의 김재경 사장(68)을 만나 보았다.

“아시다시피 포장에서 골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이와 관련한 기계산업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판지 포장기계업체가 비교적 영세하고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환경은 세계화다 무한경쟁시대다 해서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동종 업체끼리 자생적으로 의견을 모아오다가 12월중에 10여개 업체가 1,2차 발기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올해 1월 협의회 창립을 성사시켰다. 준비기간이 짧은 데 비해 단체 출범은 급속도로 이루어진 셈이다.

“좀 서두른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업계에 구심체의 필요성이 그동안 절실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기 모임에 참여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각출하고 서로 힘을 집중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협의회 창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에 회원 확보가 우선 과제이지만 업계의 결속과 협업체제 구축, 공동 기술 개발 노력,



골판지 포장기계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대정부 건의, 인력수급 방안 마련 등 협의회는 할 일이 많다.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기계메이커로 나선 김재경 회장은 국내에서도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골판지 포장기계분야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최근 3~4년간 6,000만불어치 이상을 수출했다.

“우리 업계도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산기계에 대한 신뢰가 대체로 낮은 실정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는 뛰어난 제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외제만을 선호하는 국내 USER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전환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기계 납품할 때 딸자식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는 김 회장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외를 다니며 시장개척과 아이템 연구로 나이를 잊고 있다. <우>